

Ⅰ. 연　　혁

HISTORY

1. 연혁개설



1. 연혁개설(Introduction)

태백(太白)은 태백산(太白山)에서 따온 이름으로 그 뜻은 '크게 밝다' 는 의미가 있으며 태백산은 '크게 밝은 뫼' 이며 '한밝달' 또는 '한배달' 로 부르는데 단군신화(檀君神話)와 연관이 있다.

태백은 상고(上古)에 예국(濊國)에 속하였으며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신한(진한, 辰韓)에 속한 삼척의 실직국(悉直國), 마한에 속한 부족국가(部族國家)인 태백산 남쪽 기슭에 있던 소라국(召羅國), 구령국(九靈國)에 속한때도 있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접어들면서 신라 파사왕 23년(102년)에 실직국이 신라에 항복하여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가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56년(468년)에 남진(南進)하여 실직국을 치니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후 신라 지증왕(智證王) 6년(505년)에 이곳을 수복하여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김이사부(金異斯夫)가 군주(軍主)로 부임하였으며, 선덕왕(善德王) 8년(639년)에 진주도독부(眞珠都督府)에 속하였고 무열왕(武烈王) 5년(658년)에는 삼국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로 실직주를 북진(北鎭)으로 개칭하여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경덕왕(景德王) 16년(757년) 실직주를 삼척군(三陟郡)으로 개명(改名)하여 태수(太守)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고, 고려 성종(成宗) 14년(995년)에는 척주(陟州), 현종(顯宗) 9년(1012년)에 다시 삼척현(三陟縣)으로 강하되었다.

조선조 태조(太祖) 3년(1394년)에 삼척 궁촌으로 유배된 공양왕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울진군이 역모의 본거지라 하여 울진군은 현(縣)으로 강하되고 관하(管下)에 있던 5현중의 하나인 태백현(太白縣)은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로 이속되었다가 인조(仁祖) 9년(1631년)에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관할 9개 행정구역 가운데 장생리(長生里)에 속하게 되었다.

영조(英祖) 14년(1738년)에는 삼척도호부 관할 9개리를 12개면으로 개편할 때 장생(長生)은 상장생(上長生)과 하장생(下長生)으로 분리하여 그때부터 상장생면(上長生面)은 「上長生面」으로도 표기하여 「生」과 「省」의 같은 독음(讀音)인 「生」으로 부르게 되었다.

고종(高宗) 32년(1895년)에 삼척도호부는 삼척군(三陟郡)으로, 1914년에 상장생면(上長生面)은 상장면(上長面)으로 개칭되었다.

태백시는 시 승격 이전에는 삼척군에 속한 지역으로 금대봉(金臺峰)을 중심으로 남쪽은 상장(上長)이라 하고, 북쪽은 하장(下長)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1920년 3월 1일 삼척군 상장면의 설치로 하장과 분리되어 황지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33년 일본 전력재벌이 삼척개발주식회사(三陟開發株式會社)를 설립하고 당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보유탄전의 광업권을 인수받아 장성지역의 석탄(石炭)을 개발함으로써 장성의 인구가 증가하여

1935년 면사무소를 하장성으로 옮겼으며,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9호에 의거 상장면이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옛이름을 좇아 장성읍(長省邑)으로 하였다.

1963년 6월 25일 삼척군 조례 제51호로 장성읍사무소 황지출장소(黃池出張所) 설치,

1964년 2월 1일 삼척군 조례 제72호로 장성읍사무소 철암출장소(鐵岩出張所) 설치,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장성읍사무소 황지출장소가 황지읍(黃池邑)으로 승격되었다.

1977년 9월 20일 삼척군 조례 제583호로 황지읍 화전출장소(禾田出張所), 소도출장소(所道出張所)가 설치 되었고,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로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쳐 태백시(太白市)로 승격되어 해발 650 ~ 1,500m에 위치한 한국 최고의 고원지대 도시로 북위 37° 동경 129° , 면적 259.34㎢의 15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인구 12만의 전국유일의 광도(鑛都)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삼척군 하장면 4개리(院洞, 上士美, 下士美, 助呑)를 태백시로 편입(編入)과 더불어 태백시 조례 제871호로 사조동(士助洞)을 설치하여 면적이 303.14㎢로 행정동이 15개동에서 16개동으로 늘어났다.

1998년 9월 10일 태백시조례 제1020호로 행정동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라 16개동이 8개동으로 줄어들었다.

한때 태백은 64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전국 석탄생산량의 30%를 생산하면서 전국 제1의 광도(鑛都)로서 국가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 50여개나 되던 광산이 대부분 문을 닫고 소수의 광산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5년 12월 30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는 『21c 고원레저 스포츠의 도시 신태백 건설』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그대로의 청정 관광도시 건설을 통한 신태백을 구축하고,.

특히, 1999년 12월 12일 지역생존권 확보와 개발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대정부 합의사항의 기회를 마련하여 제2의 성장여건을 조성해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2. 연혁요약(Brief History)

o 1895. 5. 26 勅令 第98號(1895. 5. 26 公布)로 江陵府에 所屬

o 1896. 8. 4 勅令 第36號(1896. 8. 4 公布)로 三陟郡에 所屬

o 1920. 3. 1 總督府令 第11號에 依하여 近代的인 行政區域인 三陟郡 上長面 設置

o 1935. 5. 三陟開發株式會社의 新開發과 同時에 人口增加로 面事務所를 黃池에서 長省으로 移轉

o 1960. 1. 1 法律 第539號(1960. 1. 1 公布)로 上長面이 長省邑으로 昇格

o 1963. 6. 25 長省邑 黃池出張所(1963. 6. 24 公布) 設置(三陟郡 條例 第51號)

o 1964. 2. 1 長省邑 鐵岩出張所(1964. 1. 30 公布) 設置(三陟郡 條例 第72號)

o 1973. 7. 1 大統領令 第6543號(1973. 3. 12 公布) 黃池出張所가 黃池邑으로 昇格

o 1977. 9. 22 黃池邑 禾田出張所, 所道出張所 設置
(1977. 9. 20 公布, 三陟郡 條例 第583號)

o 1981. 7. 1 法律 第3425號(1981. 4. 13 公布) 三陟郡 長省邑과 黃池邑을 합쳐 太白市로 昇格

o 1994. 12. 26 大統領令 第14434號(1994. 12. 22 公布)로 三陟郡 下長面 4個里(院洞, 上士美, 下士美, 助呑)을 太白市로 編入
市條例 第871號(1994. 12. 26 公布)로 士助洞 設置(15個洞→16個洞)

o 1996. 1. 11 市條例 第914號(1996. 1. 11 公布)로 鷄山洞 一部 和光洞으로 編入

o 1997. 1. 1 市條例 第960號(1996. 11. 25 公布)로 行政洞間 境界變更(鐵岩1洞 一部 → 鐵岩2洞 編入) 및 行政洞 名稱變更(長省洞 → 長省1洞, 和光洞 → 長省2洞, 鷄山洞 → 長省3洞)

o 1998. 9. 10 市條例 第1020號(1998. 9. 10 公布)로 行政洞 統廢合 및 名稱變更
(16個洞→8個洞 : 黃池1洞→黃池洞, 黃池2洞·蓮花洞→黃蓮洞, 黃池3洞·禾田1洞·禾田2洞·士助洞→三水洞, 上長洞→上長洞, 文曲洞·所道洞→文曲所道洞, 長省2洞·長省3洞→長省洞, 長省1洞·銅店洞→求門沼洞, 鐵岩1洞·鐵岩2洞→鐵岩洞)